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9.6>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064호(2019.6.5)

01

국내 주식

무역분쟁 및 반도체 부진에 부정적이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에 투자 심리 회복 전망

- 단기: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차 부상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영향까지 겹치며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투자심리를 되돌릴 만한 촉매가 단기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6월 말 G20 정상회담 전까지 지지 부진한 흐름 연장 우려
- 중기: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하반기 중 경기 회복 흐름 가시화 기대. 반도체 업황 개선도 동반되며 신형시장 투자심리 살아날 전망. 상반기 중 상대적 부진 두드러졌던 한국증시의 키맞추기 흐름 예상

02

국내 채권

성장을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했으나, 통화정책 변경까지는 시간 필요

- 단기: 1분기 GDP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분기 GDP의 반등 이후 3분기 지표를 확인하고 난 후야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를 너무 빠르게 반영해온 채권시장은 큰 폭의 가격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조정 장세 정도는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임. 6월 채권시장은 소폭의 금리상승 흐름(약보합)예상
- 중기: 1분기 부진에 따른 반작용과 이연된 재정지출 집중 등으로 2분기는 1%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건설투자 감소와 소비 증가세 둔화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은의 성장을 전망치는 추가 하향조정이 불가피해보임. 4분기 국내 기준금리 1차례 인하를 예상. 향후 6개월 간 국내 채권시장은 소폭의 가격조정 이후 재차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전약후강 흐름의 소폭의 금리하락 장세를 보일 전망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벨류에이션 부담에 유럽 상대적 매력 부각

-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단기 조정 양상. 1분기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한 내용으로 발표됐으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실제 지표 발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부담. 벨류에이션 및 무역분쟁 부담 등을 고려 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
- 유럽: 미-중 무역분쟁 부담 속에 동반 조정 흐름이나 EU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된 점은 긍정적. 미국이 무역 분쟁 관련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유럽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일 전망. 선진증시 내 벨류에이션 매력 역시 양호

04

신흥국 주식

무역 분쟁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속에 정책 기대감은 우호적

- 인도: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증시에 우호적. 다만 미-중 무역분쟁 재부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폭 제한 가능
- 중국: 6월 말 G20 회의 전까지 관련 뉴스에 따라 등락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부담이나 정부의 소비 장려, 감세, 통화 완화 등의 정책 노력이 경기 및 증시 하단 지지해줄 전망

05

해외 채권

금리 하락세 계속되었으나, 현재 수준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 미국 경기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이슈로 인한 안전 자산 수요까지 겹치며 금리 하락세 연장.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6월 말 G20 회의까지 제한적 등락 전망

06

원자재

국제적 분쟁 속에 등락 흐름 계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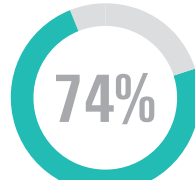
- 유가: OPEC+의 감산 연장 여부가 관건이나 이란발 공급 교란 우려와 미국 생산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선 근처에서 등락 흐름 연장 전망
- 금: 글로벌 실질금리 하락 및 미-중 무역분쟁 관련 안전자산 수요 유입은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로 관련 헷지(Hedge) 수요 역시 꺾인 점은 금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안정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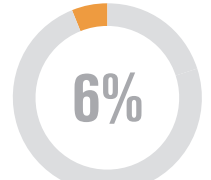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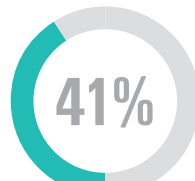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위험중립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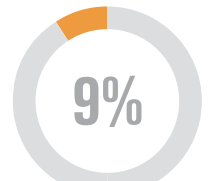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 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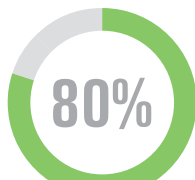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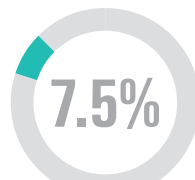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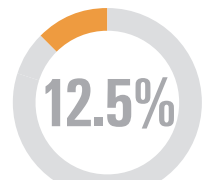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 섹터 | 투자매력도 | | 1개월 코멘트 | 6개월 코멘트 |
|------|-------|-----|--|--|
| | | 6개월 | | |
| 국내 | 주식 | = |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재차 부상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영향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 투자심리를 되돌릴만한 촉매가 단기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6월 말 G20 정상회담 전까지 지지부진한 흐름 연장 우려 |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하반기 중 경기 회복 흐름 가시화 기대. 반도체 업황 개선도 동반되며 신형시장 투자 심리 살아날 전망. 상반기 중 상대적 부진 두드러졌던 한국증시의 키맞추기 흐름 예상 |
| | 채권 | - | 1분기 GDP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분기 GDP의 반등 이후 3분기 지표를 확인하고 난 후에야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 기준금리 인하나 단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를 너무 빠르게 반영해온 채권시장은 큰 폭의 가격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조정 장세 정도는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임. 6월 채권시장은 소폭의 금리상승 흐름(약보합)예상 | 1분기 부진에 따른 반작용과 이연된 재정지출 집중 등으로 2분기는 1%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건설투자 감소와 소비 증가세 둔화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조정이 불가피해보임. 4분기 국내 기준금리 1차례 인하를 예상. 향후 6개월 간 국내 채권시장은 소폭의 가격조정 이후 재차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전약후강 흐름의 소폭의 금리하락 장세를 보일 전망 |
| 해외선진 | 미국 | - |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단기 조정 양상. 1분기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한 내용으로 발표됐으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실제 지표 발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부담. 밸류에이션 및 무역분쟁 부담 등을 고려 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 |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감세효과 희석, 재고 부담 상승 등을 고려 시 단기적으로 미국 경기 모멘텀 지지부진한 흐름 예상.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가 주가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 강세 재개보다는 선진증시 내에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며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선진증시 내에서 미국증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 |
| | 유럽 | + | 미-중 무역분쟁 부담 속에 동반 조정 흐름이나 EU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된 점은 긍정적. 미국이 무역 분쟁 관련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유럽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일 전망. 선진증시 내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양호 | 미국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고 유로존은 신형국 경기 반등에 힘입어 반등하며 두 지역 간의 경기 흐름 차이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미국 대비 유럽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돼 선진증시 내 비중 확대 시각을 제시 |
| | 일본 | = | 미-중 무역분쟁 재부상에 따른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엔화 강세 재개 조짐. 기업 실적 전망 역시 선진국 내에서 가장 미약해 대외발 정치 이벤트에 따라 좌우되는 흐름 예상.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반등은 자본재 수출에 긍정적이거나 엔화 강세 및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는 점이 수출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변동성이 커진 엔화와 10월 소비세율 인상 부담 등은 일본증시 투자 심리를 제약. 일본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 |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 | 섹터 | 투자매력도 | | 1개월 코멘트 | 6개월 코멘트 |
|-------|-----|-------|--|---|--|
| | | 6개월 | | | |
| 해외이머징 | 브라질 | = | | 연금개혁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까지 박스권 흐름 연장 예상. 중국 경기 반등 조짐에도 그 수혜는 아직 제한적인 모습 | 연금개혁 통과 시 재정 절감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이 기대돼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 예상. 다만 연금개혁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횡보 흐름 연장 불가피할 전망 |
| | 러시아 | = | |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된 가운데 루블화 약세 나타나며 달러 기준인 RTS 지수 강세 흐름.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대 역시 상존해 루블화 약세와 맞물린 RTS 지수 오름세 연장 가능 | 유가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다만 러시아 정부가 하반기부터 2024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성장률 반등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 |
| | 인도 | = | | 모디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증시에 우호적. 다만 미-중 무역분쟁 재부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폭 제한 가능 |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은 투자심리에 긍정적.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상대적 수혜가 예상되나 여타 신흥국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은 부담 요인 |
| | 아세안 | = | |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재차 부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ASEAN 증시도 동반 약세 흐름. 6월 말 G20 회의 전까지 부진 연장 가능성 상존 | 중국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혜가 ASEAN에 파급되기에는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부담 상존해 중립 의견 유지 |
| 해외이머징 | 중국 | = | | 6월 말 G20회의 전까지 관련 뉴스에 따라 등락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부담이나 정부의 소비 장려, 감세, 통화 완화 등의 정책 노력이 경기 및 증시 하단 지지해줄 전망 | 미-중 무역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기는 어려우나 전면적인 협상 결렬 우려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 정부 부양책에 힘입은 경기 반등과 글로벌 지수 편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이 중국 증시 하단 지지 기대 |
| | 홍콩 | = | |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부담이나 정부의 소비 장려, 감세, 통화 완화 등의 정책 노력이 경기 및 증시 하단 지지해줄 전망. 단기적으로 본토 증시와 키 맞추기 흐름 기대 | 미-중 무역 협상이 관건이나 경기 반등과 글로벌 지수 편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이 중국 증시 하단 지지 기대.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은행주 부담 고려 시 긴 호흡에서는 본토 증시 우위 예상 |
| 해외채권 | 채권 | = | | 미국 경기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이슈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까지 겹치며 금리 하락세 연장.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6월 말 G20회의까지 제한적 등락 전망 | 미-중 무역분쟁 이슈 재부상으로 글로벌 경기 반등 시점 지연 및 반등폭 축소 불가피할 전망. 전면적인 무역 협상 결렬 우려는 낮으나 관련 불확실성이 빈번하게 부상하며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 가능. 밸류에이션 부담 고려 시 하반기 접어들면서 하락폭 일부 되돌림 예상 |
| 대체투자 | 유가 | = | | OPEC+의 감산 연장 여부가 관건이나 이란발 공급 교란 우려와 미국 생산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선 근처에서 등락 흐름 연장 전망 | 이란 및 베네수엘라발 공급 감소 가능성 상존하나 OPEC+의 생산 조절 통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전망. 미국발 생산 확대 우려 등 고려 시 유가는 박스권 내 등락 흐름 연장 예상 |
| | 금 | = | | 글로벌 실질금리 하락 및 미-중 무역분쟁 관련 안전자산 수요 유입은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로 관련 헷지 수요 역시 꺾인 점은 금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 달러화 추가 강세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뚜렷한 약세 가능성 역시 제한적으로 판단. 안전자산 수요 유입과 함께 단기적 금 가격 반등은 가능하지만 미약한 인플레이션 기대와 주요 소비처인 신흥국 수요 부진 등이 부담 |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EUROSTOXX50 지수

1분기 유럽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하였고, 제조업 PMI는 지난 4월에 소폭 반등하였으나 3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반면, 서비스업 PMI는 견고한 고용지표 및 최근의 심리지표 개선에 따라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산업생산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감소로 인해 유로존 수치가 전월 대비 0.3% 감소한 반면 독일의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여 3개월만에 반등하였습니다.

HSCEI 지수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하여 양국의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으나, 협상 중 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최근 불확실성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간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4월 주요 경기지표도 전월 대비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생산 증가세는 3월에 호조를 띤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4월에는 전년대비 5.4% 증가하며 예상치인 6.6%을 하회하였고, 소매판매 역시 둔화되어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NIKKEI225 지수

1분기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 전년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 내 민간수요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도 전기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소비심리 둔화로 인해 수입이 전기대비 4.6%의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확대되어 실질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 10월 예정된 일본 소비세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본의 연간성장률 시장 전망은 약 0.7%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는 최근 경제지표의 흐름을 알려 주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0(중립)'보다 높으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다는 뜻이며, 반대로 '0'보다 낮으면 전망치를 하회한다는 뜻입니다. 지표의 방향성이 경기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하면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란? 구매관리자지수는 지불가격, 신규주문, 출하정도,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신뢰도 평가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구매관리자지수는 조사대상의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치화 시키며, 수치화된 지수가 50인 경우에는 이전 달에 비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수축을,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팽창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전화

콜센터 : 1688-1118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상품 판매사 지점 또는 보험사 직접 방문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